

# 국립중앙박물관 100배 즐기기!

선사 · 고대관



나는 ..... 입니다.

..... 학교 ..... 학년 ..... 반입니다.

나에게 박물관은 ..... 입니다.

## 전시품에게 물어 보세요!

비어 있는 말풍선 2개에는 여러분의 질문을 적어 보세요.

넌 언제,  
어디에서  
만들어졌니?

넌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니?

넌 어떻게  
사용되었던  
물건이니?

넌 누가 만들고  
사용했니?

### 전시품과 약속해요!

- ☐ 전시품과 대화하며 천천히 걸어 다녀요.
- ☐ 눈과 마음으로 전시품을 감상해요.
- ☐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어요.
- ☐ 관람 중에는 휴대 전화를 쉬게 해요.
- ☐ 음식은 전시품을 관람하기 전이나 정해진 곳에서 먹어요.
- ☐ 사진은 삼각대나 플래시 없이 찍어요.

## 전시품을 만나 대화할 준비가 되었으면 출발!





## 돌과 흙으로 만든 도구들

### 🔍 찾아보자!

아래의 상황을 보고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들을 전시실에서 찾아보세요.

**상황1.** 거대한 매머드를 사냥하고 손질도 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면 어떨까?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상황2.** 날씨가 따뜻해졌으니 이제 바다나 강으로 나가 먹거리를 구해 봐야겠어. 어떤 도구를 만들어야 할까?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석기인 '주먹도끼'는 사냥·채집 등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100만 년 이상 사용한 최고의 '인기 상품'이었습니다. 구석기 시대보다 자원이 풍부해진 신석기 시대에는 더 다양한 도구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정착하여 작살과 그물로 고기잡이도 시작했습니다.

### 💡 생각하자!

이동 생활을 하던 구석기 시대를 지나, 신석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바닷가나 강가 주변에 터를 잡고 살게 되었어요. 정착 생활을 시작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래의 신석기 시대 도구를 보고 빈칸을 채워 보세요.

그물추



생김새는? .....

쓰임새는? .....

아하! 신석기 시대에는 고기잡이를 했구나!

생김새는? .....

쓰임새는? 음식을 담고 요리하는 데에 사용했어요.

아하! .....



1만 년 전,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육지로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후의 변화에 따라 나무들은 잎이 넓은 활엽수로 바뀌었습니다. 동물 또한 사슴·멧돼지·고라니와 같은 다소 크기가 작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자연을 개척했습니다. 고기잡이·사냥·채집·농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량을 구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도구와 문화를 많이 만들어 냈는데, 이를 '신석기 문화'라고 합니다.

### 🌸 상상하자!

현재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 중 하나를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로 가져간다면, 어떤 물건을 가져가고 싶나요? 그 물건이 당시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예) 라이터.** 제가 가져간 라이터로 쉽게 불을 붙일 수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식량을 쉽고 빠르게 익혀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추운 날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죠?

## 하늘과 땅을 이어 주는 새

### 🔍 찾아보자!

농경문 청동기 앞면과 뒷면에서 찾은 것에 **✓** 표시를 해 보세요.

☐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새   ☐ 밭을 가는 사람   ☐ 항아리에 무언가를 담고 있는 사람



농경문 청동기는 농사짓는 사람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청동으로 만든 물건을 말합니다. 농경문 청동기의 한쪽 면에는 당시의 농경 의식에 따라 농사의 풍년을 바라며 웃을 벗고 밭을 가는 사람의 모습이, 또 다른 면에는 하늘과 땅을 이어 주는 신성한 동물인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며 마을 입구에 세우는 긴 막대기인 솟대가 연상됩니다.

### 💡 생각하자!

농경문 청동기에 대한 아래 질문의 답을 생각해 보세요.

#### 누가 사용했을까?

청동기는 까다로운 제작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어요.

#### 어떻게 사용했을까?

구멍의 쓰임을 생각해 보세요.

#### 무엇이 새겨져 있었을까?

자유롭게 상상해서 적거나 그려 보세요!

#### 왜 사용했을까?

고대 사람들은 새가 하늘의 신에게 소원을 전달해 준다고 믿었어요.

고대 사람들은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며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은 하늘의 신과 대화하기 위해 청동으로 만든 방울이나 거울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농경문 청동기도 이런 도구 중의 하나로, 윗부분에 난 구멍에 끈을 매달아 어딘가에 걸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조선실에서 청동으로 만든 다른 제사 도구들도 찾아보세요!

### 🔍 찾아보자!

부여·삼한실에서 하늘과 땅을 이어 주는 동물 모양의 토기를 찾아보세요.

그중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골라 아래에 그려 보세요.

고대 사람들은 새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하늘로 데려다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와 같은 의례에서 사용하기 위해 새(오리) 모양의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 💡 생각하자!

이 토기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등과 꼬리 부분의 구멍을 살펴보세요!

새(오리)모양 토기는 술이나 물을 담고 따르는 주전자의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 무덤을 지켜 주는 사신도



북쪽을 지키는 '현무'

### 🔍 찾아보자!

전시실에서 고구려 무덤에 그렸던 벽화의 모사도

원본을 똑같이 그린 그림을 찾아보세요. 고구려 무덤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드나요?

네 개의 '사신도' 동서남북을 지키는 4가지 동물 그림 중 '현무'를 관찰하고 찾은 것에 ✓ 표시를 해 보세요.

- ☐ 몸통이 '거북이의 등딱지'같이 생겼어요.
- ☐ 꼬리와 목은 길고 날렵한 '뱀'같이 생겼어요.
- ☒ 왼쪽 앞다리를 보면 앞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나머지 신들도 찾아보고 자유롭게 관찰해 보세요.



서쪽을 지키는 '백호'



남쪽을 지키는 '주작'



동쪽을 지키는 '청룡'

### 💡 생각하자!

① '강서대묘' 안에 왜 '사신도'를 그렸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무덤을 영혼이 머무는 장소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지키는 수호신인 '사신'을 무덤 벽면에 그렸습니다.

② 다른 무덤의 벽에는 어떤 것들을 그렸을지 생각해 보세요.

현재 남아 있는 무덤 벽화에는 사신도를 비롯해서 옛날 사람들의 풍속과 인물을 벽화로 남긴 것들이 많습니다. 죽은 사람의 인생 중에 가장 기억할 만한 일이나 여유로웠던 생활 모습을 그려 넣었습니다. 죽은 뒤에도 편한 삶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무덤 벽면에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 🌸 상상하자!

앞에서 살펴본 고구려 무덤에는 죽어서도 편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 놓았지요.  
미래의 내 무덤은 어떤 모습일까요?  
100년 후 나의 무덤을 상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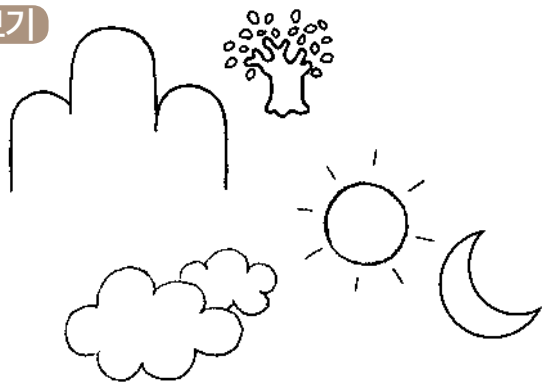


## 다양한 무늬를 품고 있는 벽돌

### 🔍 찾아보자!

백제실에서 ‘산수 무늬 벽돌’을 찾아보세요.  
빈 공간에 알맞은 것을 **보기** 에서 골라  
동그라미를 쳐 보세요.

보기



산수 무늬 벽돌

이 전시품은 전체 면을 나무가 가득한 산봉우리로 표현하였습니다. 위에서는 굽은 선으로 아름답게 표현된 구름을, 아래쪽 가운데 산봉우리에서는 신선이 사는 집과 신선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 🌀 상상하자!

내가 이 벽돌의 장면 속으로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나요?



다양한 무늬 벽돌 중, ‘산수 무늬 벽돌’에서는 백제 사람들이  
꿈꾸던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 💡 생각하자!

벽돌의 네 모서리를 살펴보세요. 사각형의 홈이 파여 있는데, 이것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무늬 벽돌’의 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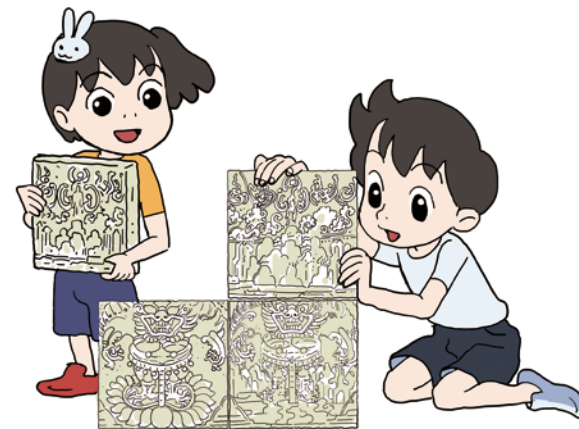
### 🎨 그려 보자!

네 종류의 무늬 벽돌을 합치면, 새로운 무늬가  
나타나요. 오른쪽 빈칸에 무늬를 그려 보세요.



다르게 생긴 4개의 무늬 벽돌을 나란히 이어 보면,  
가운데에 새로운 꽃 무늬가 나타납니다.  
무늬 벽돌 4개가 하나의 짝으로 합쳐졌을 때 꽃무늬가  
계속 나타나도록 만들어서 벽돌들이 하나처럼  
이어져 보입니다.

백제 사람들은 벽돌을 나란히 놓아 건물의 벽 등을 장식하였습니다. 벽돌을 서로  
튼튼하게 연결하려고 홈과 홈 사이에 나무같이 단단한 것을 끼워서 고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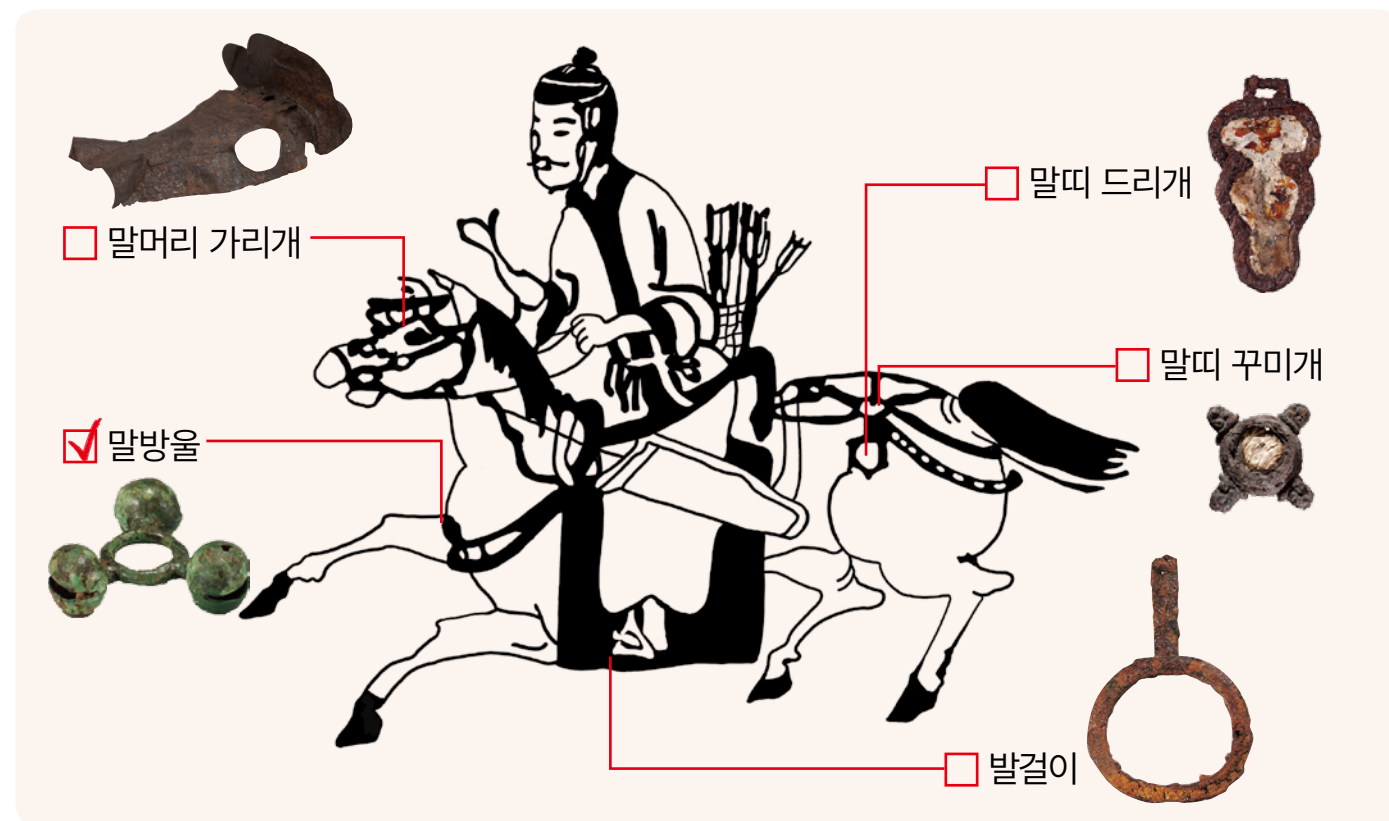




## 강한 쇠로 만든 말갯춤

### 🔍 찾아보자!

전시실에서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말을 찾아보세요! 말갯춤 말을 부리는 데 필요한 도구들 다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 표시를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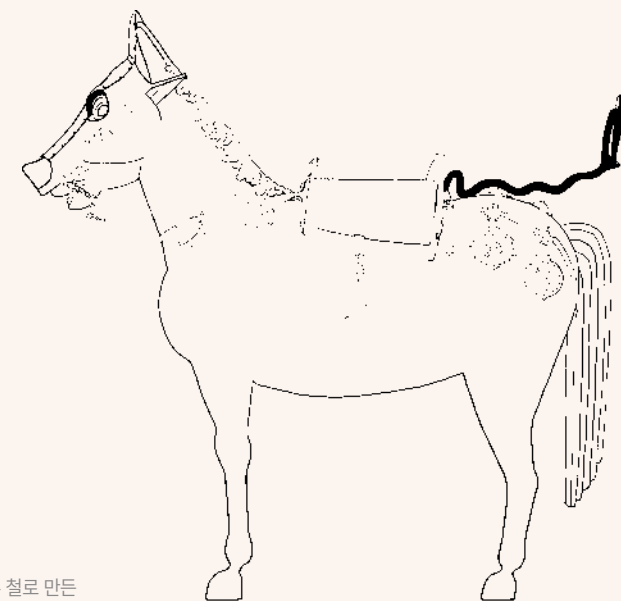
말갯춤에는 말을 타고 부리는 데에 필요한 재갈과 고삐, 안정적으로 말을 타기 위한 발걸이와 안장, 말을 꾸미기 위한 말방울, 말띠 드리개, 말띠 꾸미개 등이 있습니다. 또 전쟁에서 말을 보호하기 위한 말머리 가리개와 말갑옷도 있는데, 이러한 말갯춤에서 가야의 발달된 철기 제작 기술과 군사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 🌸 상상하자!

말의 몸통을 보호해 주는 말갑옷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무덤에서 발견된 말갑옷의 일부를 보고 나머지를 상상해서 아래의 말 그림에 그려 보세요.



함안 마갑총에서 발견된 가야의 말갑옷



가야의 말갯춤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습니다.  
고구려 벽화에 있는 ‘철갑 기병’ 말을 타고 싸우는 병사들 중 사람과 말 모두 철로 만든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병사의 모습을 통해서도 말갑옷의 모양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 💡 생각하자!

말갯춤은 모두 쇠로 만들었어요. 쇠는 강한 성질 때문에 지금까지도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고 있지요. 아래의 글을 읽으면서 쇠로 만든 물건들에 동그라미를 쳐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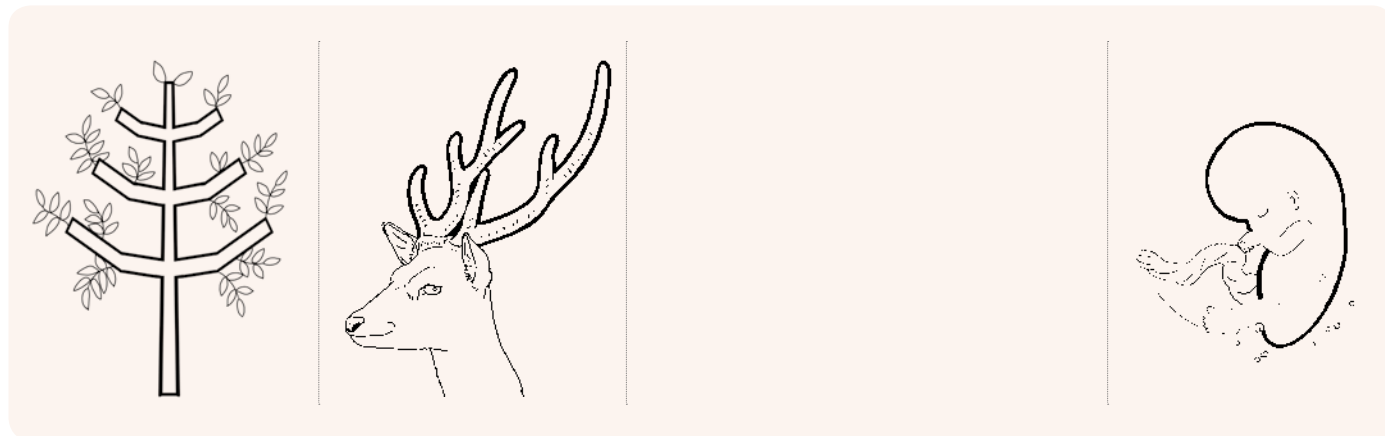
“장작불 앞에서 고구마를 호호 불어 먹으면 좋을 추운 날이다. 할아버지가 장작으로 쓰시려고 도끼로 나무를 패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지하철을 타고 한강철교를 지나 따뜻한 집에 돌아와서는 큰술에 있는 곰탕을 데워 먹었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에 퍼지니 문득 작년 여름 프랑스 파리에서 본 에펠탑이 떠올랐다.”



## 지배자의 힘

### 🔍 찾아보자!

전시실에서 신라 금관과 금허리띠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고, 아래의 것들 외에 발견한 것을 그려 보세요.



금관에서 발견되는 나뭇가지와 사슴뿔 모양은 하늘과 땅을 이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금관이 힘 있는 사람의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허리띠에는 물고기, 굽은옥옥을 다듬어 끈에 꿰어서 장식으로 쓰던 구슬 등이 달려 있는데, 물고기는 풍요로움을, 굽은옥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 💡 생각하자!

신라의 왕족들은 왜 금관과 금허리띠가 힘과 신분을 표현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시대마다 지배 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재료가 있었습니다. 고조선 시대에 제사장이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한 도구는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 상상하자!

금관과 금허리띠를 착용한 나를 상상해 보세요. 내가 왕이라면 무엇으로 내 힘과 신분을 나타낼까요?

### 🔍 찾아보자!

다음 전시실로 이동해, 신라 진흥왕(540~576 재위)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북한산에 세운 비석 ‘진흥왕 순수비’를 찾아보세요. 비석의 옆면으로 가서 동그라미 안에 있는 한자를 찾아 점선을 그으며 읽어 보세요.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 📐 만들어 보자!

왕이 되어 순수비를 만들어 봅시다.

비석의 이름을 지어 볼까요?  
예) 연희왕 순수비

비석이 세워질 곳은 어디인가요?  
확장할 영토를 생각해 보세요.

### 💡 생각하자!

순수비에는 어떤 내용이 새겨져 있을까요?

진흥왕 순수비에는 순수왕이 직접 지역을 둘러보는 것을 하게 된 이유와 과정, 왕과 함께 순수한 사람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내 영토를 순수하면서 민심과 노고를 위로하고자 한다.”라는 순수비의 내용에서도 보듯이 진흥왕은 영토를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을 신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옆면에는 조선시대 추사 김정희(1786-1856)가 이 비를 조사한 후에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혀낸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비석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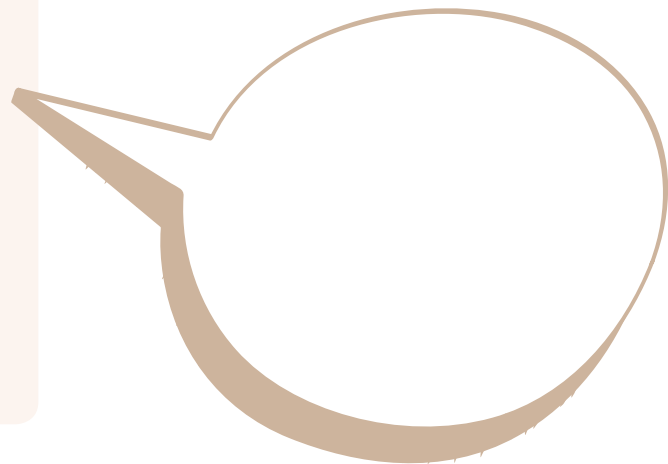
비석을 세운 후 기분은 어떨까요?

## 집을 지켜주는 기와



### 🔍 찾아보자!

통일신라의 궁궐이 있던 경주 월지에서 발견된 기와를 찾아 빈 공간을 채워 보세요.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요?



### 🌸 상상하자!

기와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표정을 따라해 보세요. 기와가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말풍선에 적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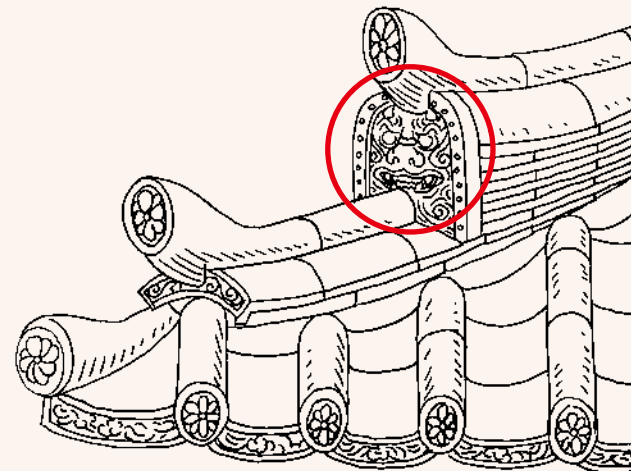


통일신라의 왕과 귀족들은 집에 나쁜 귀신이 들어오거나 불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서운 모습의 기와를 만들어 건물 지붕에 올렸습니다. 두 개의 뿔과 부릅뜬 눈, 날카로운 송곳니,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기운의 무늬를 보니 어떤 기분이 드나요?

### 💡 생각하자!

앞에서 살펴본 기와를 지붕에 어떻게 얹었을까요? 기와의 뒷면을 살펴보세요.

지붕에 기와를 장식하기 위해 못을 박아 고정할 수 있도록 적당한 곳에 못 구멍을 뚫거나 줄을 맴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 🔍 찾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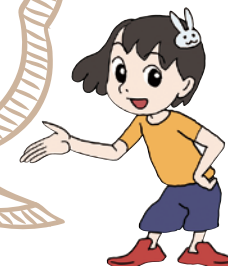
발해실에서 통일신라의 기와와 같이 나쁜 귀신과 재앙을 막아 주는 '용머리상'을 찾아보고 아래 빈칸을 채워 보세요.



부리부리한 눈,  
커다란 콧구멍,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지고 있어!

용머리상은

용도로 사용했다.





## 오늘 박물관에서 만난 전시품을 떠올려 보세요.

그럼 이제 이 전시품들이 만들어진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나’ \_\_\_\_\_가(이)  
살아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 \_\_\_\_\_는(은) 구석기 시대부터 현재까지 긴 시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전시품 카드의 8가지 물건 모두가 나의 기나긴 인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대도 신분도 뛰어넘은 나의 삶, 나의 이야기를 완성해 주세요.”

- 1 각 전시품 카드 뒷면에 그 전시품과 얹힌 이야기를 상상해서 적거나 상황을 그려 보세요.  
빈 칸에는 인상 깊게 본 전시품을 넣어 주세요.
- 2 각 전시품 카드는 이야기 흐름에 맞게 한 장씩 뜯어 자유롭게 배열하세요.
- 3 완성된 이야기를 친구나 가족에게 들려주세요.



기획·개발: 교육과 박연희, 장연심, 서나임  
감수: 고고역사부 오세연, 교육과 서성호  
교정: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발행: 국립중앙박물관  
편집·디자인: 대원씨아이(주)  
제작·보급: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이 학습지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국립중앙박물관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시품 대여, 교체, 수리 등으로 전시실에 없는 전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값 2,000원



산수 무늬 벽돌

주먹도끼

농경문 청동기

용머리상

말머리 가리개

금관

예) 나는 오늘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금관을 쓰고 금허리띠를 찼다.



무덤 벽화